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이 더듬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 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 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와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찌기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들은 정말 신앙이 없는 자들이 분명하다. 우리는 그런 신앙 없는 자들이 되지 말자! 절대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숭배하지 말자! 하지만.... 그게 다일까? 그들이 만든 것은 무엇이며? 무엇이 우상숭배일까? 다시 한 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깊게 묵상해 보면 좋겠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아론에게 요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한 일은 무엇인가?

아론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태연하게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모르고 있는듯하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를 만들다니... 더욱 이상한 것은 그런 행동을 해 놓고도 그들은 너무나 태연스럽게 그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것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우상 숭배인가? 그것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음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가 그 안에 숨어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알아야만 한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많은 종교적인 형식들 모양들 단어나 태도들 속에 얼마나 쉽게 하나님 자신이 아닌 우리의 소망을 담은 "우상" 들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당신은 하나님에게 주목하며 순종하는가? 아니면 당신이 원하는 무엇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을 고용하고 있는가?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찌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겹옷을 찢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의 청한바 금 귀고리 중수가 금 일천 칠백 세겔이요 그 외에 또 새 달 형상의 장식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 목에 돌렸던 사슬이 있었다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힘인가? 우리는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종종 우리의 열심이 혹은 우리의 능력이나 재주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간다고 생각할 수 있다. 노골적으로는 아니라도 은근히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거나 말이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히 도전한다. 무엇이 우리의 힘인가?

미디안과의 전쟁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은 무엇인가?

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보였던 첫 반응은 무엇인가?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무엇인가?

기드온의 요구가 일으킨 결과는 무엇이며, 무엇이 문제인가?

언제나 문제는 작은 것에서 시작함을 명심하자. 오늘의 신앙 중음이 내일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음 또한 명심하자. 그러나 더 크고 본질적인 이슈는 도대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한시라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며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인지를 맘 속 깊숙이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우상을 좇는 불명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다. 한 번 더 확인하자. 우리는 그저 일용할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 삼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어찌하면 우상을 섬기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 그것의 출발은 무엇일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회개' 라는 말을 감정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회개' '온전한 회복' 의 의미와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권고하고 있나?

호세아 선지자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계속해서 은란한 길을 택하는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와야 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그의 예언의 결론처럼 말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영적인 음란의 문제를 이스라엘이 넘어설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감에서 출발하여 그를 알아감으로 마무리된다. 그런 면에서 진정한 문제의 해결의 출발인 회개는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는 총체적이며 인격적인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를 고치시며, 싸매시기를 기뻐하시고 늘 일정하신 하나님을 아는 일 그것이 '참된 회복' 의 마지막이 되는 것이다. 당신은 전 인격적인 '회개' 를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의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런 하나님을 아는 축복이 당신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복한다.